



‘베이징 기적’ 기대하며...

사상 첫 메달은 고사하고 8강터줏차 불안한 박성화호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선다.



축구

올림픽축구대표팀은 은 13일 오후 6시(이하 한국시간) 중국 상하이스타디움에서 온두라스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D조 3차전을 치른다. 한국으로서는 대회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한 판이다.

1무1패로 이탈리아(2승), 카메룬(1승1무)에 이어 조 3위로 처진 한국은 스스로 8강에 오를 수 없다.

2연패로 이미 조별리그 통과가 좌절된 온두라스를 이겨놓고 같은 시각 덴전에서 킴프렐 이탈리아-카메룬전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한국이 온두라스를 꺾는다 해도 카메룬이 이탈리아를 이기거나 양 팀이 비기면 박성화호는 보따리를 싸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이탈리아가 카메룬을 꺾어 카메룬과 1승1무1패로 통틀어 돼 골득실차를 따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때도 현재 골득실차(카메룬 +1, 한국 -3)에서 크게 뒤진 한국이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다.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다.

박성화호 오늘 온두라스전 이겨놓고

이탈리아-카메룬 경기 결과 지켜보아야



박성화 감독은 상하이 도착 후 “자력 8강 진출은 어렵게 됐지만 마지막 희망을 갖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선수들도 “앞선 경기는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은 남아있다”며 이탈리아와 2차전 0-3 참패로 잔뜩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다.

온두라스전에는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

한국은 이탈리아전에서 4-3-3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다득점 승리가 필요한 온두라스전에서는 그 동안 훈련해 왔던 대로 박주영(서울)-이근호(대구)를 선발 투톱으로 내세운 4-4-2 전형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풀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등으로 측면 공격을 살려야 하고, 한국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패싱 게임으로 매끄럽게 공격을 전개해 나가야 그나마 기적을 바라볼 수 있다.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정우(성남)-기성용(서울)이 짝을 이루고, 좌·우 미드필더로는 백지훈(수원)과 이창용(서울)이 배치될 전망이다.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동진(제니트)-김진규(서울)-강민수-신광훈(이상 전북)으로 구성하고, 골문은 정성룡(성남)이 지킨다.

한국과는 역대 올림픽대표팀 간 한 차례 맞붙었는데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인 친선경기에서 한국이 2-0으로 승리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흰색)이 3회전 브라질 선수와의 경기 때 갈비뼈가 흔들거릴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준결승과 결승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베이징 과학기술대학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73kg급 준결승전에서 왕기춘이 봉대를 감은 채 타지키스탄 라슬 보키예프와 대결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왕기춘 갈비뼈 골절...6개월 재활 불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값진 은메달을 따낸 남자 유도 73kg급의 ‘겉없는 신예’ 왕기춘(20·용인)이 갈비뼈가 부러져 6개월 정도 재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도

많은 다행”이라면서 “일단 뼈가 어긋나지 않게 일부를 맞추고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왕기춘은 전날 남자 유도 73kg급 경기에 나서 레안드로 갈레이로(브라질)와 8강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팔꿈치에 왼쪽 옆구리를 맞아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투혼을 발휘하며 준결승 승리 뒤 결승에서 달미를 잡혀 은메달을 따냈다.

박진영 박사는 이어 “뼈를 맞춘 게 유지가 잘 되면 수술 없이도 아무는 걸 기다리면 된다. 6주 정도면 아물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박진영 박사는 “뺨조각이 폐를 찌러 구멍이 뚫리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봉중근



류현진



김광현

미국전 선발 누굴 세울까?

야구대표팀이 13일 오후 7시(한국시간) 미국과 베이징올림픽 본선 첫 경기를 앞두고 전력 노출을 막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야구

특히 미국을 위시한 경쟁팀들이 선발투수를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 중이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1일 베이징 우커송 야구장 연습구장에서 첫 훈련을 치렀다. 수비와 타격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투수들은 불펜 피칭을 하지 않고 톱토스로 가볍게 풀만 풀었다.

두 시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각국의 훈련이 벌어지기에 불펜에서 투수들이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보력에서 낭패를 볼 수 있어 투수들은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투수들의 어깨는 다 풀렸고 지금은 쉬게 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 했다.

대표팀은 6일 쿠바와 평가전을 끝으로 실전을 모두 마쳤으나 9일까지 투수마다 돌아가며 불펜 피칭을 하고 컨디션을 조율한다.

김 감독은 “미국과 경기에 나서는 선발 투수가 부담은 크겠지만 불펜 투수를 총동원할 예정이기에 제 몫만 해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총력전을 선언한 이상 선발 투수의 ‘제 몫’은 3-4이닝으로 파악된다. 5이닝 이상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면 더할 나위 없다. 향후 풀리그 선발 로테이션을 고려할 때 미국전 선발은 봉중근(28·LG), 류현진(21·한화), 김광현(20·SK) 중 한 명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규시즌 탈삼진 공동 1위(107개), 평균자책점 5위(2.93)를 달리며 해외파 투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봉중근은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해 타자들의 습성을 잘 안다는 점에서 0순위 후보로 꼽힌다.

특히 15-3으로 대승한 6일 쿠바전에 선발로 나와 4이닝 동안

안 삼진 7개를 속아내며 4안타 무실점으로 쿠바 강타선을 요리, 합격점을 받았다. 쿠바는 우타자 일색인 팀이었다.

미국은 좌타자와 스위치 히터가 각각 1명씩 있을 뿐 10명이 우타자여서 오른손 타자 요리에 재능이 있고 경험도 풍부한 봉중근이 ‘첫번째’ 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봉중근은 미국이 뻔히 생각할 수 있는 선발 카드를 쓰는 점에서 그를 낙점할 경우 김경문 감독과 조계현 투수코치의 계투작전에 생애가 달렸다. 4인 선발 로테이션이 지켜진다고 볼 때 18일 대만, 19일 쿠바전을 고려한다면 김경문호에서 원투 펀치로 급상승한 류현진 또는 김광현이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지난해 12월 아시아세선과 지난 3월 최종예선을 거치면서 국제경기 적응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이들 중 한 명을 선발로 쓰면 히든카드 봉중근을 최종예선에서 패했던 캐나다전으로 돌릴 수 있어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유지할 수도 있다.

‘김경문호’ 극도의 보안 유지 속

봉중근·류현진·김광현 등 거론



박성현



주현정



윤옥희

개인전 7연패 “내가 쏜다”

‘박성현이나, 주현정이나, 윤옥희나’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6연패 이어 개인전 7연패 위업에 도전하며 즐거운 고만에 빠졌다.



양궁

1순위 후보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개인·단체전 2관왕 박성현(25·전북도청)이다.

박성현이 14일 베이징 올림픽파크 양궁장에서 열리는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한국 양궁 사상 처음으로 개인전 2연패의 주인공이 된다.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에 처음 나간 1984년 LA대회(서향순)를 시작으로 1988년 서울(김수영), 1992년 바르셀로나(조윤정), 1996년 애틀랜타(김경숙), 2000년 시드니(윤미

진), 2004년 아테네(박성현)에서 6차례나 정상에 올랐지만 매번 주인공이 바뀌었다.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개인전 첫 2연패에 도전하는 박성현은 ‘한 단계 위에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는 남자 대표팀보다도 더 센 44.5파운드 강궁(強弓)을 사용한다. 활 강도가 쉰수목 화살은 빠르고 끈게 날아가 과녁에 더 정확하게 꽂히기 마련이다.

결승전에서 박성현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윤옥희(23·예천군청)다. 박성현과 달리 키(162cm)도 작고, 활도 약하지만 세계랭킹은 1위로 박성현보다 한 계단 높다. 올해 열린 양궁 2, 3차 월드컵 개인전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금메달을 향한 집념은 박성현보다 강했다면 강했지 않겠다.

곡성출신으로 광주체고를 졸업한 주현정(26·현대모비스)도 만만치 않다. 주현정은 12일 64강에서 시그리드 로메로(콜롬비아), 32강에선 세계랭킹 3위 나탈리아 발리바(이탈리아)를 꺾고 상승세다.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박성현, 윤옥희지만 주현정은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앞세워 개인 금메달을 놓고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한편 특정 국가가 개인전 종목을 7연패하는 건 쉽지 않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다.

미국도 남자 육상 400m에서 7연패를 노린다. 미국은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1896년 아테네 대회부터 1968년 멕시코 대회까지 16연패를 한 적도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 소식

“中 무상상, 장미란에 경쟁력 뒤져 출전 못해”

신화통신 역도담당 기자 분석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의 강력한 금메달 경쟁자로 꼽혔던 무상상(24·중국)이 경쟁력에서 밀려 2008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서 역도를 담당하는 류양 기사는 12일 “무상상이 2005년부터 3년 동안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최종량급 경기에서 장미란에게 밀려 세 차례 연속 2위를 차지, 금메달이 확실치 않아 중국 올림픽 역도 엔트리에 뽑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상상이 지난 5월 어깨를 가볍게 다치기도 했지만 이보다는 장미란과 비교해 경쟁력에 뒤지기 때문에 대표팀 명단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여자양궁 문형철 감독 애투병 중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6연속 금메달 행진을 지휘한 문형철(50) 여자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12월 ‘갑상샘암 3기’라는 판정을 받고 애투병중.

문 감독은 올해 1월 갑상샘 암 절제수술을 했고, 4월엔 항암치료도 받았으며 남은 방사선 동위원소치료는 올림픽이 끝난 뒤인 11월로 연기한 상태.

14일 여자 양궁 개인전 7연패 도전을 앞둔 문 감독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부담스러운 듯 예써 “별일 아니다”라며 “치료를 잘 받으면 살 만큼 살 수 있다고 들었다. 일단은 올림픽이 먼저다”라며 예써 태연한 모습.

홍콩언론 양궁·박태환에 관심

○“홍콩의 언론들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여자 양궁선수들과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에게 큰 관심.

홍콩의 문화보(文匯報)는 12일 ‘한국 양궁선수들 땀으로 탐욕훈련을 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올림픽 6연패의 금자탑을 달성한 우리나라 여자 양궁선수들의 강도높은 훈련방식을 소개.

이와 함께 명보(明報)는 ‘박태환 선수의 패활량이 보통사람의 두배에 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400m 남자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태환 선수에 대해 자세히 소개.

오늘의 올림픽

◇13일(수·한국시간)

- ▲양궁 = 남자 개인전(11시·올림픽공원양궁장) ▲배드민턴 = 남녀 단·복식(11시·베이징공과대 체육관) ▲농구 = 여자부 한국-호주(21시·베이징올림픽농구체육관) ▲야구 = 한국-미국(19시·베이징 우커송 야구장) ▲축구 = 남자부 한

- 국-온두라스(18시·상하이 스타디움) ▲핸드볼 = 여자부 한국-스웨덴(15시·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 ▲하키 = 남자부 한국-중국(11시30분·베이징올림픽그린하키 경기장) ▲사격 = 여자 25m 권총(10시·베이징 사격장) ▲탁구 = 남녀 단체전(11시·베이징대체육관) ▲레슬링 = 그레코로만형 66kg급(10시30분·중국농업대 체육관)